

Issue Comment

- ✓ 정부의 건설 투자 기초, 긍정적으로 선화
- ✓ GBC, GTX 모멘텀으로 일부 대형주 단기 주가 수혜
- ✓ 상반기 중 정책 모멘텀으로 중소형주 Trading BUY 유효

[건설] 정부의 건설 투자 기초 선화, 상반기 추가 모멘텀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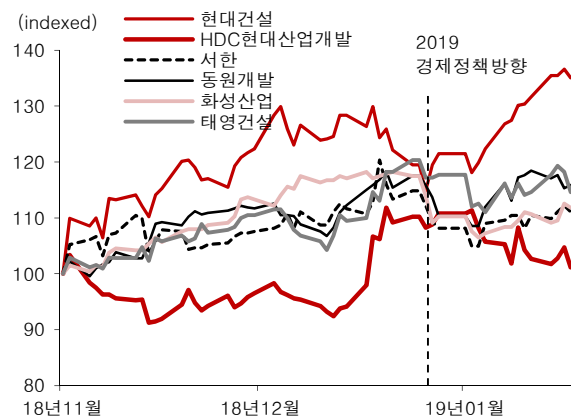
- 2018년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SOC 예산이 1.2조원 증가하여 19.8조원으로 증액 편성된데 이어, 12월 17일 2019년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되면서 정부의 건설, SOC 투자 기초 역시 긍정적으로 선화됨. 특히, 현대차 신사업인 GBC 건설 계획 승인을 위해 행정 장벽을 풀어준다고 밝히면서, GBC 시공 업체인 현대건설과 GTX C노선 수혜가 기대되는 HDC 현대산업개발의 주가 퍼포먼스가 단기적으로 좋았음. 또한, 12월 19일은 남양주, 하남, 과천, 계약에 총 12만호 규모의 3기 신도시 건립 계획을 밝힘.
- 정책 발표 이후 현대건설을 제외하고 보면 중소형 대표 건설주의 경우는 정책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모습임. 이는 1) SOC 예산 증액에도 불구하고 지방 부동산 침체로 인한 수주 턴어라운드 가 나타나기 어렵고, 2) 민자 SOC 사업 역시 현금이 풍부하고 레코드가 많은 대형 건설사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게 때문임. 다만, 상반기 중 정부의 지방 건설투자 관련 추가 정책 발표 혹은 신도시 건립 계획 구체화 등 사업 가시화가 기대되기 때문에 Trading BUY 접근 유효해 보임

12월 중순, 2019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주요 종목 상대 주가 추이

GBC-반도체 등 12조 민간투자 유도에 경제활력 힘 싣는다

정권 중반기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가 마침내 투자 확대를 통한 경기 활성화를 정책 화두로 내세웠다. 한국 경제의 전통 주력 산업과 건설·토목 분야를 촉진하는 정책이 다수 포함돼 지난 1년간의 소득주도성장 실험을 사실상 끝내고 정부가 경기 부양의 기본 방정식으로 돌아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중략) 정부가 GBC 건설 계획을 승인하려는 것은 최근 서울 부동산 시장이 안정추세에 돌입한 영향이 크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시기를 조절했던 것일 뿐 사업 자체를 막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며 “현재 집값 불안 요소 등이 어느정도 사라졌다고 판단한 부분이 이번 결정에 영향을 줬다”고 인정했다. (후략)



- 2018.12.17 매경이코노미

자료: 매경이코노미, SK 증권

자료: FnGuide, SK 증권 / 주: 2018-11-01=100, pts

- 작성자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투자판단 3단계 (6개월 기준) 15%이상 → 매수 / -15%~-15% → 중립 / -15%미만 → 매도